

20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현장 발표 지원사업

<누구에게나 이유는 있다> 최종 심사 결과 발표

○ 최종 심사 총평

○ 심의 일자 및 장소

- (최종 포트폴리오 심사) 2026년 5월 9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쉐마미술관 교육실

- (최종 심사위원명) 김민기, 김복수, 신승오, 이문정, 조혜령

※ 심의위원 : 국공립 미술관 학예사 및 평론가, 디렉터 등 전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2026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현장발표지원 사업'은 발표 경력이 없는 예비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대 예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쉐마미술관은 본 사업의 취지에 따라 충청·대전권역 예비작가들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확장하고, 동시대 미술 담론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누구에게나 이유는 있다>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모는 청년 작가들이 자신의 문제의식과 조형 언어를 깊이 탐구하고, 작가 멘토링과 평론가 매칭 과정을 통해 작업을 성찰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대전권역 7개 예술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미술대학 졸업생들이 안정적인 창작 기반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2026년 5월 9일(토) 진행된 최종심사에는 국공립미술관 학예사, 평론가, 디렉터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참여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40인의 작가를 대상으로 최종 선정 작가 16인을 선발하기 위한 심층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심사 역시 엄격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실험성·참신성·작업의 완성도와 함께 작가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지원자들이 개인의 내면과 동시대 청년 세대의 불안과 감정을 자신만의 시각 언어로 풀어내고 있었으며, 자신의 작업 세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진지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종 선정된 16인의 작가들은 각자의 개성과 문제의식이 뚜렷하며 앞으로의 작업 전개가 기대되는 작가들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에 지원해주신 모든 충청·대전권 예비작가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과정이 앞으로의 창작 활동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심의위원장 김 민 기

○ <누구에게나 이유는 있다> 공모 최종 선정 작가 명단

최종 선정 작가		
※ 접수번호 순 정렬		
접수번호	지원자 정보 (성명 및 휴대폰 번호 끝 네자리)	
1	이○은	2710
3	류○현	4007
4	황○성	7556
13	장○경	5172
14	조○은	6918
18	박○은	3252
22	이○아	0391
36	신○진	6634
40	이○진	5078
47	정○나	1366
48	인○형	8219
50	김○빈	7149
53	임○진	7910
54	김○연	8827
67	박○수	5377
68	자○○○ ○○나	3555